

# ‘시간의 골목, 전주한옥마을’ 특별전

전주한옥마을역사관, 10월 18일까지 개최... 옛 사진 자료 통한 도시 기억·역사문화 조명

전주한옥마을의 옛 사진 속에 담긴 도시의 기억과 역사문화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와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2026년 특별전 ‘시간의 골목, 전주한옥마을’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전과 풍남문, 오목대, 전동성당 등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과 전주천, 한벽당, 조경묘 등의 옛 사진 자료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단순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넘어 조선 왕조의 분향으로서 전주의 역사성과 전통문화, 그리고 근대 산업과 생활 문화가 공존해 온 전주한옥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왕조의 분향, 전주’를 주제로 경기전과 조경묘, 오목대, 한벽당 등의 옛 사진 자료를 통해 조선 왕실과 전주의 역사적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주부성과 도시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풍남문과 전주천, 전주 시가지, 풍락헌 등의 사진을 활용해 전주의 도시 형성과 생활 문화 변화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전통과 근대문화의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전동성당과 함께 문화연필, 백양베리야스 공장 등의 근대 산업 관련 사진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와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2026년 특별전 ‘시간의 골목, 전주한옥마을’을 진행한다.

자료가 전시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형성된 산업과 시민 생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전주한옥마을역사관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임청진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이번 “이번 특별전은 전주한옥마을의 옛 사진 속에 담긴 도시의 기억과 삶의 흔적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조선 왕조의 분향으로서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전통과 근대가 공존해 온 전주한옥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

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을 개최하는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전주한옥마을의 형성과 변천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지난 2018년 개관 이후 연평균 약 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역사관은 개관 이후 해마다 2회 이상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화제가 들려주는 전주한옥마을 이야기를 진행하는 등 전주한옥마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전주한옥마을을 소개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권희성 기자



익산시가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를 통해 백제왕궁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사진은 푸른 잔디와 동계구름이 어우러진 여름 풍경 그림엽서.

##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 연중 운영

익산시, 왕궁리유적 담은 맞춤형 엽서 3종 제작... 연말 일괄 발송

익산시가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를 통해 백제왕궁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익산우체국과 함께 운영해 온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를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는 전시를 관람한 뒤 느린 감정과 추억을 엽서에 적어 박물관 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연말에 받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해 처음 운영한 당시 준비한 엽서 500장이 모두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박물관은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운영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했다.

이에 익산우체국 고객맞춤형 엽서 제도를

활용해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엽서 3종, 총 600장을 새롭게 제작했다.

푸른 잔디와 동계구름이 어우러진 여름 풍경, 눈 덮인 왕궁리오층석탑의 설경, 탑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 등 계절마다 다른 백제왕궁의 매력을 담아 소장 가치를 높였다.

엽서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담을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최소화하고 필기 공간을 넓혀 편지를 쓰는 즐거움을 더했다.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시 관람 후 안내데스크에서 원하는 엽서를 1인 1매 받아 미래의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할 이야기를 적은 뒤 박물관 로비에 마련된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작성된 엽서는 오는 12월 31일 일괄 발송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순창공립미술관, 본관 ‘이존립 작가 초대전’·섬진강갤러리 ‘소장품 기증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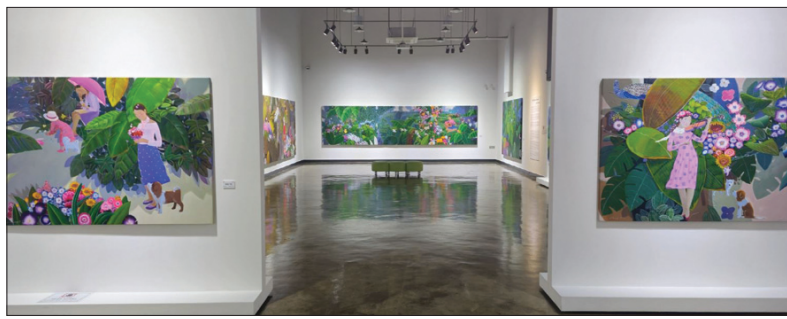
순창공립미술관이 본관(옛 육천골미술관)과 섬진강갤러리(옛 섬진강미술관)에서 기획전시를 동시에 개최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8월 2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본관의 ‘이존립 작가 초대전’과 섬진강갤러리의 ‘소장품 기증전-감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예술의 나눔 가치를 동시에 조명한다.

본관에서 열리는 이존립 초대전 ‘Scenery within a happy day’은 ‘정원’이라는 일관된 테마를 통해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선보인다. 작가는 실재하는 풍경을 넘어 유년 시절의 추억과 꿈이 깃어낸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캔버스 위에 펼쳐 보인다.

특히 동양화의 자연관과 모더니즘 회화의 원리가 깊게 드리워진 독창적인 구상 화풍이 눈길을 끈다. 화려한 색채들의 상호구성과 완숙한 붓질을 통해 자연현상에 내재한 기운을 생동감 있게 포착해 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작들은 익숙하고 동화적인 감성을 자극



순창공립미술관 본관에서 ‘이존립 작가 초대전’이 8월 2일까지 개최된다.

하며 관람객을 따뜻하고 달콤한 낭만의 세계로 이끈다. 푸른 나뭇잎과 화사한 꽃들 사이로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들은 인간과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평화로운 한때를 보여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원초적인 위로와 휴식을 선사한다.

같은 기간 섬진강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소장

품 기증전 ‘감사’전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미술관이 기증받은 소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기획전이다. 평생을 창작에 헌신한 예술가들의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걸실을 통해, 오늘날 기증 문화가 지닌 가치와 미학을 새롭게 제시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영유아 국악체험 ‘덩덕콩 국악놀이터’ 성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영유아 대상 놀이형 국악체험 ‘덩덕콩 국악놀이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악 놀이터는 영유아들이 전통음악을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체험형 국악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일간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총 4회 운영했으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연 장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됐다.

무대에서 선보인 어린이 국악극 숲속음악대 덩떡콩은 동요 ‘산중호걸’을 바탕으로 토끼, 곰, 피꼬리, 여우, 호랑이 등 친근한 동물 캐릭터가 등장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펼쳤으며, 무대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단원들이 출연해 국악기 연주와 소리, 연기



를 통해 아이들과 교감했다. 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우리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함께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